

오늘은 출격할까? ... 또, 비로 미뤄진 파노니의 데뷔전

잠실구장 LG전 비로 취소 ... 선발 준비 KIA 새 외국인 투수 '허탈'
오늘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 등판 플러트코와 맞대결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투수 토마스 파노니가 또 비를 만났다. KBO '진짜' 데뷔전은 14일 치러진다.

13일 잠실야구장에서 예정됐던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시즌 9차전이 비로 취소됐다. 이날 선발 등판을 준비했던 파노니의 출격도 하루 미뤄졌다.

비에 막힌 파노니의 출발이다. 파노니는 지난 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경기를 통해서 KBO에 첫선을 보였다. 하지만 공식 기록은 남지 않았다.

이날 경기가 비로 한 차례 중단됐다. 파노니가 공을 던지던 3회초 2사 상황에서 다시 비가 쏟아지면서 결국 노계임이 선언됐다.

파노니가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서 던진 46개의 공은 결국 기록이 되지 않았다. 비도 판독 끝에 그라운드를 돌았던 KT 박경수의 홈런도 비와 함께 사라졌고, 파노니의 피홈런도 지워졌다.

비가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잊지 못할 첫 등판에 나선 파노니는 13일 두 번째 등판을 준비했다.

파노니는 물론 전반기 내내 외국인 투수 고민에 빠져있던 김중국 감독과 KIA 팬들에게도 눈길 끄는 등판이었다.

하지만 서울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이번에는 아예 마운드에 오르지도 못하고 짐을 챙겼다.

파노니는 하루 밀어 전반기 최종전인 14일 LG와의 경기를 책임지게 된다.

KIA는 파노니를 필두로 해서 전반기 마지막 승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

지난 8일 한화전에서 팀의 8연패를 끊었던 이의리가 파노니에게 14일 선발 자리를 내주고 뒤에서 대기하게 된다. 앞선 한화와의 주말 3연전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무리 정해영도 3일 휴식을 취하면서 재출전을 끝냈다.

관건은 플러트코 공략이다. 파노니를 하루 밀어 마운드에 내세우는 KIA와 달리 LG는 14일 김윤식 대신 플러트코를 선발로 출격시킨다.



파노니

플러트코는 올 시즌 개막전 포함 KIA를 상대로 세 차례 선발 등판했다. 17.1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6실점(3자책점)하면

서 1.56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을 수확했다. LG는 플러트코가 나온 세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겼다. KIA는 플러트코를 상대한 17.1이닝 동안 11개의

안타를 뱉아내는 데 그쳤다. 김선빈 8타수 1안타(0.125) 1삼진, 나성범 8타수 2안타(0.250) 4삼진, 류지혁 5타수 무안타, 최형우 5타수 2볼넷 2삼진 등으로 부진했다.

소크라테스가 8타수 3안타(0.375), 1홈런 3타점으로 플러트코에 강세를 보였지만 코패 골절로 자리에 없다.

플러트코에 강했던 황대인이 상승세를 탄 부분은 반갑다.

황대인은 올 시즌 플러트코와 8번 만나 3안타, 1볼넷, 1삼진을 기록했다. 최근 페이스가 좋지 못했던 황대인은 12일 LG전에서는 2개의 2루타로 2타점을 수확했다.

이창진도 플러트코에게 선제 스리런을 날린 기억을 가지고 있다.

김도영은 타선의 새로운 기대주다. 앞서 세 번의 맞대결에서 안타를 만들지 못했던 김도영이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다.

타석에서 경험을 쌓은 김도영은 매서워진 타격으로 KIA 타선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12일에는 잠실 담장을 넘기는 스리런을 날리는 등 7월 가장 뜨거운 타자 중 한 명이다.

마운드 총공세를 준비한 KIA가 플러트코를 넘고 전반기를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경훈 150회 디오픈 도전장

이경훈이 13일 영국 스코틀랜드 파이프주의 세인트앤드루스에서 진행된 제150회 디오픈 연습라운딩에서 어프로치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대표 센터백 김민재, 이탈리아 나폴리 가나

영국 스카이스포츠 "협상 중" 보도
프랑스 리그1 렌도 영입 나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핵심 수비수 김민재(26·페네르바체)의 행선지로 스타드 렌(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 축구 명문 나폴리가 언급되고 있다.

영국 스포츠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13일(한국시간) "주전 센터백 칼리두 콜리발리(31·세네갈)의 이적이 유력해진 나폴리가 김민재 영입을 위해 페네르바체와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나폴리는 2014년부터 팀 수비를 책임졌던 콜리발리가 첼시(잉글랜드)와 FC바르셀로나(스페인) 등 유럽 명문 구단의 관심을 받으면서 비상이 걸렸다.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에 따르면 콜리발리의 영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구단은 첼시다. 이 매체는 첼시가 나폴리와 어려운 협상을 이어

가고 있지만, 이미 콜리발리와의 4천만 유로(약 526억원) 상당의 장기 계약을 조건으로 합의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메르카토를 비롯해 나폴리 지역 매체 스파치오 나폴리 등은 콜리발리를 대체할 선수로 김민재를 언급하고 있다.

다만 나폴리가 영입 후보군으로 김민재를 검토 중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판은 "페네르바체의 김민재가 있다. 그러나 렌과 영입 경쟁을 벌여야 한다"며 "구단이 라치오를 이기는 프란체스코 아체르비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34세 베테랑 선수인 아체르비는 이탈리아 대표팀에 승선해 2020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우승을 이끈 수비수다.

최근 김민재 영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구단이 프랑스 리그1의 렌이다.

렌의 브루노 제네시오 감독은 지난 8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김민재의) 계약이 순조롭게 진

행되고 있다. 다만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라 조심스럽다"며 "그는 우리가 원하는 선수"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 귀안을 떠나 튀르키예(터키) 프로축구 페네르바체와 4년 계약한 김민재는 2021-2022시즌 정규리그 31경기(1골)를 포함해 공식전 40경기를 뛰었다.

그는 지난달 오른쪽 복사뼈 부상으로 시즌을 조기 마감하고 귀국해 수술을 받았으나, 팀에선 주전으로 자리를 굳혔다.

첫 시즌을 마친 김민재는 유럽 바리그 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페네르바체 이적 전부터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잉글랜드), 유벤투스(이탈리아) 등 이적설이 돌았던 그는 최근 나폴리와 렌 외 세비아(스페인), AC밀란(이탈리아) 등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다.

유럽 축구 이적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김민재의 몸값은 1400만유로(약 184억원)다. /연합뉴스

광주FC, 다재다능 신예 공격수 양창훈 영입



광주FC가 다재다능한 신예 공격수 양창훈(23·사진)을 영입했다.

광주는 13일 K4리그 서울중앙축구단에서 활약한 공격수 양창훈을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

186cm·82kg의 체격의 양창훈은 장신에도 빠른 스피드를 가졌으며, 날카로운 왼발과 집착한 마무리가 장점인 최전방 공격수다. 좌우 측면 공격은 물론, 미드필더와 수비수까지 소화 가능한 멀티플레이어이기도 하다.

한양공고를 졸업하고 2018년 중앙대 유니폼을 입은 양창훈은 입학과 함께 2018 제14회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2018 U리그 4학년 우승(6골)의 주역이 됐다.

또 2019 제55회 전국체육대회축구연맹전 우승과 2019 U리그 1학년 준우승(12골)에도 이바지했다.

대학 무대에서 맹활약하며 이름을 알린 양창훈은 올 시즌 K4리그 서울중앙축구단에 입단, 프로 무대를 향한 여정을 끝냈다.

이정효 감독은 "양창훈은 공격과 수비, 어느 포지션에 두어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재능있는 선수다. 무엇보다 양창훈의 패기와 절실함이 돋보였다. 광주의 축구에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프로 무대를 밟게 된 양창훈은 "꿈에 그리던 프로 무대를 간간함과 후원이 장점이 광주에서 시작하게 돼 기쁘고 설렌다. 신인다운 마음가짐으로 묵묵히 헌신하고,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잉글랜드의 전 축구선수 웨인 루니(36)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아우디 필드에서 열린 감독 취임 발표식에서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웨인 루니, 미국프로축구 D.C 유나이티드 감독 됐다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의 간판 골잡이였던 웨인 루니(37)가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 D.C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공식 선임됐다.

D.C 유나이티드는 13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루니 감독의 선임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잉글랜드 대표팀 공격수로 이름을 날린 루니는 2021년 1월 현역에서 은퇴하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2부리그 팀인 데비 카운티 사령탑을 맡았다.

그러나 데뷔 카운티가 2021-2022시즌 잉글랜드 2부 리그인 리그 챔피언스에서 24개 팀 중 23위에 머물러 3부로 강등되자 지난달 사퇴했다.

루니 감독은 2018년부터 두 시즌 동안 D.C 유나이티드에서 선수로 활약했고, 리그 48경기에서 23골 15도움을 올렸다.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을 연고로 하는 D.C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5승 2무 10패, 승점 17로 동부 콘퍼런스 14개 팀 가운데 13위에 머물고 있다.

루니 감독은 비자를 발급받은 대로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체드 애슈턴이 감독 대행 맡는다.

데이브 캐스퍼 D.C 유나이티드 단장은 "루니는 승자이며 항상 경쟁하는 사람"이라며 "그가 경기에 접근하는 방식과 추구하는 축구 스타일이 우리의 철학에 부합한다. 팀을 발전시킬 적합한 인물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루니 감독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D.C 유나이티드에 돌아와서 기쁘다. 이번엔 감독"이라며 부임 사실을 알렸다. /연합뉴스